

# 북스

## Books

### 민담 통해 본 한국인의 무의식 세계

웅, 호랑이 탄 한국인과 놀다

이나미 지음

밤마다 짐승과 사람의 간을 빼먹는 여우 누이와 현대의 영화, 드라마, 소설을 장식하고 있는 여성들의 복수극, 질투, 치정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베스트셀러 작가 겸 정신과 전문의 이나미씨가 민담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무의식을 분석한 신간 '웅, 호랑이 탄 한국인과 놀다'를 냈다.



민담의 분석에는 분석 심리학자 카를 융의 심리 분석 기법을 사용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여우 누이와 대중문화 속 나쁜 여자는 "여성 무의식 속에 있는 파괴적인 측면이 담겼다"고 소개한다.

사악한 판도라철의 모티프는 민담과 신화뿐 아니라 현대의 대중 문화 곳곳에 등장한다.

저자는 '남성적 폭력성'은 성질나면 무아지경으로 휘두르는 둔기처럼 격하고 급한 반면, '여성적 폭력성'은 바늘로 찌르는 듯 정교한 방법으로 상대를 아프게 한다고 설명한다.

또 국내 민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분석하고, 한국인의 정서 밑바탕에 가려왔던 집단 무의식이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살펴봤다.

'우렁이 각시'는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은 한계가 있으며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을, '방귀쟁이 며느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 준다고 풀이했다.

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에선 자녀의 독립을 방해하는 부모 콤플렉스가 내포돼 있고, '도깨비 감투'라는 민담 안에는 잘못된 가면 뒤에 망가져 가는 자에 대한 성찰이 숨어있다고 분석한다.

이 밖에 '선녀와 나무꾼'에서 선녀가 나무꾼에게 날개옷을 빼앗기는 장면은 결혼생활에서 요구되는 희생과 인내로 설명했다.

경상도에서 여자아이를 가리켜 '가시내'라고 부르는 어원을 민담을 통해 추적한 부분도 흥미롭다.

어느 옛날 돌팔매, 토끼잡이, 황소 등 올라타기에 능한 씩씩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이 여자아이는 나라에 전쟁이 나자 자기도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하지만, 장군은 여자아이라고 거절한다. 하지만 이 여자아이는 갖을 쓴 채 말을 타고 나



여우 누이 민담 속에는 여성 무의식 속에 있는 파괴적인 측면이 담겨있다. 사진은 SBS TV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의 한 장면.

타나 적진으로 뛰어들어 결국 적군을 물리쳤다. 전장에서 군사들이 이 여자아이를 '갓 쓴 애'라고 불렀고, 그 이후 이 말이 변해 '가시내'가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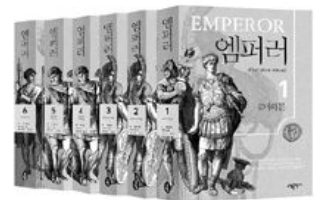
저자는 민담을 듣거나 읽을 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 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어떤 민담을 들을 때 특히 행복했는지, 슬펐는지, 화가 났는지 살펴보면 자신 속에 있는 콤플렉스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민음인·1만3000원)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 로마 영웅 카이사르

### 일대기 다룬 역사소설



로마제국의 영웅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일대기를 다룬 '엠퍼러 시리즈'(전 6권)가 완간됐다.

그의 인생 초년기를 그린 1권 '로마의 문'이 출간된 이후 한 달 만에 나머지 5권이 한꺼번에 나왔다. 큰 이글던이 집필한 이 시리즈는 소년 카이사르에서 정열 넘치는 청년 카이사르, 중장년 카이사르의 마지막 운명의 순간까지를 숨가쁘게 그려낸 대역사소설이다.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 일부 장면을 각색했지만, 카이사르를 비롯해 브루투스, 옥타비아누스, 클레오파트라 등 로마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았다. 세밀하게 그린 로마 시대 전투 장면도 박진감 넘친다. <소담출판사·1만2000~1만4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문학의 숲에서 동양을 만나다

김선자 지음

디즈니 애니메이션 '물방'이 중국 복조의 악부민가 '목랑'을 토대로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요괴이야기가 실려 있는 '요재지이'는 '천녀유혼' 등 수많은 판타지 영화의 소재가 되어왔다.

동양신화 전문가이자 중국문학 연구자인 김선자 씨가 쓴 '문학의 숲에서 동양을 만나다'는 '시경'에서 '홍루몽'까지, 공자에서 이탁오까지 동양의 위대한 사상과 문화 속 옛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우리를 만든 원형을 탐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문교양서이다.



### 공자에서 이탁오까지... 中 고전에 비친 우리의 얼굴

책은 중국 문학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고전을 통하여 역사의 흐름과,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집 떠나 전장으로 향하는 한나라 관 '이등병의 편지'인 악부민가 '열다섯에 군대에 갔다가'(十五從軍征)나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칼 들고 집을 나서는 가장의 비애가 담긴 '동문을 나서며'는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프게 다가오는 이야기들이다.

고달픈 삶을 버티게 해줬던 사랑 노래도 여전하다. 저자는 "사랑의 맹세를 담은 '하늘이시여'라는 노래는 2천 년이 지난 오늘도 중국에서는 끊임없이 리메이크되고 있으며, '꽃잎은 하얗고 바람에 지고 만발 날은 아득타 기억이 없네'라는 노랫말로 익숙한 우리 가곡 '동심초'는 사실 당나라 여성 시인 설도의 '봄날의 기다림' 중 제 3수를 시인 김악이 번역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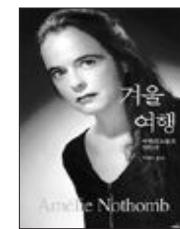
책에서 다루는 중국 고전은 실로 방대하다. 조조의 '죽은 영혼들의 노래'에서 느낄 수 있는 백성에 대한 권력자의 마음에서부터, 지식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지성을 대표하는 '사기'와 '한서', '시경'에 등장하는 수 많은 시와 노래까지 어마어마하다. 읽다 보면 들어본 듯한 이야기도 있고 낯선 이야기도 나온다.

저자는 단순히 '고전'의 상징적 의미로만 글을 읽기보다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그렇게 해서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웃음과 눈물, 감동을 전해준다.

(웅진지식하우스·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새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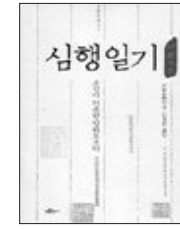
▲겨울여행=프랑스의 베스트셀러 작가 아멜리 노통브의 2009년 작품. 문헌학자이자 전력공사 직원으로 일하는 조일은 자폐증을 앓는 여성작가 알리에노르 말레즈와 함께 살고 있는 아름다운 아스트로라브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그러나 알리에노르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아스트로라브의 사랑을 얻지 못하자 보인 여객기를 납치해 에펠탑을 폭파시킬 계획을 세운다... <문학세계사·9000원>



▲기적같은 한순간=우리 시대 명사들이 말하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담았다. '도지의 작가 고(故)박경리 선생을 비롯해 김용택 시인, 연출가 이운택, 천하장사 이만기 인제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25명이 들려주는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자신의 길을 가며 만들고 축적한 통찰력과 지혜가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 줄 것이다. <미음의숲·1만2000원>



▲좌우파사전=한국사회의 핵심 의제 22개를 골라 이를 좌파와 우파의 시각이라는 틀로 해석한다. 하나의 개념을 둘러싼 현실세계의 실질적 대립을 좌와 우의 시각으로 나눠 살펴본다. 좌우 대립의 객관적 원인과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세계사적인 좌우파의 입장도 정리했다. 구갑우·안병진·조형근 등 중진 학자 14명이 전공 분야에 따라 내용을 다뤘다. <위즈덤하우스·3만5000원>



▲심행일기=강화도조약으로 널리 알려진 조일수호조규 당시 조선 대표로 참석했던 신헌(1810~1888년)이 협상을 벌였던 1876년 1월30일부터 3월1일까지의 일들을 생생하게 기록한 '심행일기'를 최초로 완역했다. 당시 접견단의 행적, 일본측과의 협상기록, 접수한 공문, 보고문, 상소문 등을 그대로 기록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푸른역사·3만9800원>



▲스캔들='유럽의 구원자'로 명성을 날리다 '유럽 최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한 이바르 크루거 사건, 세계 최고 에너지기업의 부패와 탐욕의 상징이 된 엔론사태 등 세계 경제를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은 흥미진진한 세계경제의 뒷 이야기를 파헤친다. 경제지 '포춘'에 연재됐던 기사를 중 가장 흥미로운 20가지를 선정해 정리했다. <서돌·1만6000원>



▲설계자들='캐비닛'으로 문학동네소설상을 수상한 김언수씨의 신작 장편소설. 의뢰받은 대상의 죽음을 구성하는 설계자들과 이들의 설계를 실행에 옮기는 자객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일제시대 이래 가장 강력한 암살 청부 집단 '개들의 도서관', 도서관장인 너구리 영감의 양자 '래생'(來生)은 암살자다. 민주화가 되면서 기업형 보안회사로 성공리에 탈바꿈한 '한자'의 회사가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개들의 도서관과 충돌한다. <문학동네·1만2000원>

▲저녁=소설가이자 시인인 송기원씨의 네번째 시집. '굿바이' '임종' '묘비명' '사자밥' '주검' '자연사' 등 죽음을 주제로한 시편을 모았다. 시인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연결로서의 죽음을 노래한다. 죽음을 초월하는 상상력으로 죽음에 짓눌려 있는 이들에게 다가간다. <실천문학사·8000원>

**CBS가 대한민국 No.1 TV뉴스채널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No.1 뉴스 채널 CBS가  
 "대한민국 No.1 뉴스 채널"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BS와 미래를 함께 하실 투자자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No.1 뉴스 채널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투자금 100억 원 이상  
 2. 투자금 10% 이상  
 3. 투자금 10% 이상

문의: CBS 투자팀 (02-6399-1111) | www.cbs.co.kr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번길 11 (삼성동) CBS빌딩 11층